

해외의약뉴스

피임주사는 HIV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요

전 세계적으로 약 4,100만 여성들이 주사 형태의 호르몬성 피임을 시행한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피임 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여성의 HIV 감염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키워드

호르몬 피임제, DMPA, HIV 감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은 사하라 아프리카의 총 39,560명의 여성을 포함하는 12개의 연구에 대해 메타 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Lancet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된다.

호르몬성 피임에 따른 HIV 감염 위험성의 증가는 지난 이십여 년 간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 주제를 둘러싼 많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들은 주사뿐만 아니라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호르몬성 피임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3억 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피임을 한다.

이러한 피임 유형은 배란을 방지함으로써 효력을 나타낸다. 호르몬성 피임 주사인 '데포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DMPA)' 역시 임신이 되지 않게 자궁의 내벽을 변화시킨다. 피임약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반면 피임주사는 3개월마다 한번 맞으면 된다.

"이러한 호르몬 피임제의 사용은 의도치 않은 임신을 방지하여 산모와 유아의 이환율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여성이 또 다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연구의 저자는 기술한다.

만약 HIV 감염 위험성의 증가가 호르몬 피임제와 관련이 있다면, 피임약 상담과 정책 구현 양측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하라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DMPA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자는 말한다.

• 위험성의 증가가 DMPA의 철수를 정당화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12개의 관찰연구 분석 결과에서 DMPA의 사용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여성과 다른 방식의 피임을 사용하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HIV 감염의 위험을 40%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통계적으로, 40%는 중요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용어로는 위험성의 약간의 증가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의 역학자인 주 저자 Lauren Ralph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성의 증가는 DMPA를 완전히 철수시키는 바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 :

DMPA 사용의 금지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대안적인 피임제에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고, 여전히 출산이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Ralph는 “상업적 성매매업 종사자와 서로 다른 파트너십(한 파트너는 HIV 양성이고, 나머지는 아닌)의 여성들”과 같은 고위험 여성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경우, 특별히 더 많은 정당화 관련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저자는 앞으로 호르몬성 피임제와 HIV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향후 무작위 시험에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 연구는 논쟁에서 '중요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보고서와 함께 발간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대학교의 Christopher Colvin과 미국 공중보건 브라운대학교의 Abigail Harrison의 관련 논평이다.

“Ralph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 HIV와 DMPA의 관계에 관한 오랜 논쟁에 중요한 요소를 더하고 있으며, 이 관계에서 건강에의 영향성, 방법과 규모에 관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들은 관련 논평에서 평하였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87861.php>